



주 제:	“착한 목자”	“부활 제 4 주일”	2009년 5월 3일
복음 묵상:	[요한 10,11-18]	[사도 4,8-12]	[1 요한 3,1-2]

성소주일인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목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 착한 목자의 몫을 다하셨습니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습니다. 늑대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목자처럼 예수님도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을 믿는 이들을 지키며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지키시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착한목자는 또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각자의 이름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양들을 잘 알고 계신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십니다.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흩어져 숨죽여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가 온전해지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착한 목자이신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양들을 잘 알고 계시고 그 양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십니다..”

모든 일들 안에서 먼저 주님의 뜻을 찾는 삶은 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라가는 착한 양들의 삶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 것처럼 그분의 양떼인 우리도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만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큰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삶을 누리게 되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전주교구 감영수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안호삼 프란치스코 형제님과 세실리아 자매님 4/26-5/6 까지 성지 순례를 떠나셨습니다. 성지 순례중에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보내시고, 은혜로운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최철훈 베드로 형제님 부친이 위독하시어 급히 1 주일 여정으로 서울로 떠나셨습니다. 부친이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시고, 아울러 여행길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주 예로니모 단장님과 도미니카 자매님, 여행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심에 감사...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간이 나빠 지난 9년동안 어려운 식이요법으로 치료를 하려고 고생하시었으나 근간에 직접 주사로 투약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의 지시로 투약을 시작하였으나 뒤따르는 부작용으로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박소피아 모친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가대 가족으로서 좀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 하셨듯이 까리따스 자매님도 훌훌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가족들은 힘을 모아 기도중에 주님께 자비를 청해 주십시오.
- 조성숙 리따자매님 한국 방문중에 있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알림**  
 5월 3일(일) 로 예정되었던 야외 미사는 돼지 독감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소되었으며, 모든 미사는 보통 주일 미사로 성당에서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성가대의 연습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9시 15분까지 오셔서 아침 연습을 하여 주시고 미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 단장 최주남 예로니모

✦ 복음 [요한 10,11-18]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목자가 아닌 삿꾼은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쳐 버린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 가고 양떼는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 그는 삿꾼이어서 양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 와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 듣고 마침내 한 떼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는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은 명령이다."

1분 명상

♡한 번의 포옹♡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한 번의 포옹이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포옹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안아보십시오,  
따뜻한 포옹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당신이 있어 기쁘다'는 것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상대방은 물론  
당신의 영혼에도 좋은 일입니다.

- 이룸트라우트 타르의 《페퍼민트 나를 위한  
향기로운 위로》 중에서 -

\* 포옹은 '얼싸안는' 것입니다,  
'얼을 감싸 안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요,  
가슴뿐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감싸 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쑥스러워 합니다, 그러나 자주 하다 보면  
'얼싸안는' 그 따뜻함의 힘을 온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한 번의 포옹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녹아내리니까요,

**오늘의 말씀 사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에페 2,8)."